



## 창조하는 고통으로 바다를

- 「노인과 바다」를 읽고 -

김 현 우\*

작년 겨울 이맘때 쫓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남들이 다하는 공부를 1년 더했던 나는 틀에 박혀 있었던 나의 2년을 정리할 생각으로 혼자 자유로이 여행을 가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무작정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 안에서 온갖 생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사이 마침내 종착지인 정동진에 도착하게 되었고, 역에서 바로 보이는 백사장에 앉아서 새벽바다를 만나 절 정도 아무 것도 하지 않은채 일출만을 기다리며 멍하니 있었었다. 끊임없이 들리는 파도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서였는지, 아니면 친구 하나 없이 찾아가서 무작정 일출을 기다리려던 나의 계획에 무료함 때문이었는지, 잠이 계속 쏟아졌다. 하지만 밤하늘에 떠있는 별, 지평선 근처에 떠있는 듯한 백사장의 모래와 동화되어 버린 듯 앉아 있었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아닌 이 세상과 연을 끊고 살아가는 수도승이 된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연상했던 과거의 일들이다. 독서를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배경지식이라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이처럼 절실히 그것이 유용함을 느껴 본 적은 적이였다. 과거에 이책을 읽을 때 그냥 흘려 보냈었던 내용들이 이제는 나의 경험에 다시 비추어져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으니 말이다. 앞으로 바다라는 무대에서 거의 평생을 지내야 할 나로서는 이 글을 읽고 느

\* 해사대학 해양경찰학과

끼는 감정이 아무래도 남달랐고, 느끼는 내용 역시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글을 읽으면서 다시금 느꼈던 나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적어보려 한다.

먼저 나에게 있어 '바다'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다. 얼마 전 해양경찰학과로 모 잡지사에서 설문지를 보내 왔다. 졸업 후 진로나 현재의 생각 등을 묻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 미래의 바다는 우리에게 있어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 라는 항목이 있었다. 거기에 난 "마지막 자원의 보고, 지구촌화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할 무역로"라고 썼었다. 다시 말해 바다의 경제적인 측면에 관해서만 쓴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느낌을 쓰고 있는 지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썼던 나의 생각은 너무나도 짧은 것이었으며 단편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심사숙고해 그 의미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져 보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결과, 나만의 바다의 의미는 무한한 안식처였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나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파도 소리로 언제든지 씻어내 줄 수 있고, 나 아니 우리 인간이 항상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그의 모든 것을 빼내가도 언제나 다시 찾을때 웃으며 반겨주는 그런 존재 말이다. 그러한 까닭에 노인이 바다를 친구로 생각하고 애착을 가졌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이 바다의 친구인 고기들을 가져가도 노여워하거나 아깝게 생각지 않으며 노인이 찾을때마다 반겨주는... 이 글을 읽으면서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주인공의 토지에 대한 애착(사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이 노인의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다. 만물의 근원이란 한다해도 별 무리가 없는 이 두 사물에 대해 가지는 인물들의 생각 혹은 태도, 그것은 객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의 사리 사욕만을 쫓아 그것들을 마구 파괴하는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 나역시 그들의 한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끄럽기 그지없다. 보호하고 아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더더욱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자연이라는 것은 파괴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이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 언젠가는 자연의 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여 의의를

제기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이에 대해 반성하고 각성을 해야 한다.

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 살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힘든 일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맡으면 먼저 포기부터 하고 싶은 맘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은 이처럼 외롭고 힘든 상황을 흔히 장인 정신이라 말하는 것으로 이겨내었다. 그것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승고미를 지닌 그 자체였다. 그 행동을 통해 난 나태해져 있던 나의 생활과 정신을 되돌아 보고 반성을 할 수 있었다. 졸업 후 갖게 될 나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음에 더더욱 그러했으며, 아울러 될대로 되란식의 나의 사고방식에 어찌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여 나의 행동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 기대했다. 2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래와 싸움을 한 것, 그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기엔 난 앞으로도 이런 노인의 행동을 모범 삼아 더더욱 나의 행동을 가다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나, 혹은 볼 수 없는 곳에서까지 말이다. 하지만 보이는 곳에서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건, 그들에게 감사하는 맘을 가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다. 일례를 들어 10년을 넘게 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는커녕 계속 걱정을 끼치거나 혹은 투정만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잘되면 자신의 능력때문이고 못되면 남탓을 하는 나 자신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난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조금이라도 덜 지루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소년과 같이 나를 믿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으며 어느 사람이 말했던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라는 어구를 내 뇌리속에서 지워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절대 우리는 고독하지 않다. 노인에게 소년과 바다 별 등 여러 친구들이 있었듯이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왜 쓰느냐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

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도 당연하기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금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흔히 난 야구 경기에서 투수는 외로운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8명의 야수들이 받쳐주고 있는 결코 외롭지 않은 위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생활하게 될 바다 역시 이런 든든한 후원자 중에 한명일 것임을 생각하니 더더욱 친근감이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에 내가 자주 가는 책방 아저씨께선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신다. “불가능이란 없다. 설령 있다고 쳐도 그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난 요즘 내진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웠다. 확실치도 않은 정보를 홍보지에 게재해 나의 꿈을 짓밟아 버린 학교측에 대한 불만도 많았었고 또 포기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할 때, 같은 과 동기들과 얘기 할 때조차도 해양경찰의 부정 부패들을 들추어 내며 그런 일을 해서는 뭘하겠냐고 비꼬는 듯한 투의 말도 수 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불가능은 없으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의지라고 다시금 생각 할수있게 이 글은 그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작은 배 한척에 의지해 고래라는 강적과 맞닥뜨린 노인, 침에 자신이 어부를 왜 했을까 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함께 그 큰 고기를 포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다시 태어나도 어부를 할 것이라는 굳은 결심으로 우리와 같은 범인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결국 이루어 내고 만다. 이는 부정적 사고에 빠져 헤어 나올 구멍조차 찾고 있지 못하던 나에게 있어 매우 긍정적이게 비추어졌고, 다시금 나의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시도한 게 없는 상태에서 환경만을 비판하고 있는 지금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나의 직장이 될 해양경찰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직업관을 정립시킬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스스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내어 나 자신을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다.

3년전쯤 일까 난 음악가(ROCK)가 되고 싶어한 적도 있었다. 그것 때문

에 예술가들이 주로 말하는 창조의 고통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다. 그때 스스로 내뱉던 예술의 창조적 고통에 대한 결론, 그것은 끊임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었다. 몇 년 전, 한 가수의 은퇴가 사회를 시끄럽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그는 대중음악을 하는 한 사람에 불과 했지만 그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로 인해 그의 은퇴를 안타깝게 여겼던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가 은퇴를 하면서 남긴 말중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창작의 고통으로 괴로워 하지 않고 싶다고 한 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술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절차탁마의 자세로 평생을 살아간 예술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가 그런 말을 꺼낼 시간에 음악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해야 옳은 일일 것이며 그를 사랑해 주는 팬들을 떠올려야 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말에 모순은 그의 은퇴 후 다시 그의 이름으로 독집을 내면서 드러나 버렸다. 하나의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요절한 천재들에 비견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보다는 이글의 노인이 낡지 않을까 싶다. 손과 등의 부상, 수면 부족이라는 악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마지막에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인 고래를 상어들에게 모두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정이 훌륭해서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거라고 본다. 최선을 다한 뒤의 평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만족을 한다면 결과야 어떻게 되든 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노인의 행동에서 우린 예술가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찾아낼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도 예술품과 같은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예술품을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며 후회가 남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간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며, 지금은 좋지않은 평판을 지닌 해양경찰이라 하더라도 나 하나 노력한다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큰 수확을 얻는 한알의 밀알처럼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글을 읽으며 가장 분노했던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난 주저없이

상어들의 출현으로 인해 노인의 공이 없어지는 부분을 꼽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한 상어와 같은 부류의 인간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공들여 쌓은 노력을 한 순간에 앗아가려는 파렴치한 족속들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것 때문에 말이다.

작년인가 일본이 우리 어선을 강제로 포획한 적이 있었다. 국제 규약을 어기고 자치규약을 적용해서 말도 안되는 비논리적인 작태를 보여 우리를 눈쌀 찌푸리게 만든 일 말이다. 그들 역시 이런 상어와 같은 족속들로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해양을 더 더욱 개척해야 한다. 이 따위의 압력에 못이겨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해양의 시대라고도 하는 21세기에 우리가 서야할 땅은 없을 것이며, 아울러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속 자체도 위협 받는다는 사실을 주지해야만 할 것이다.

일단 우리는 바다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만큼은 “노인”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 파괴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자, 친구로서 말이다. 그렇다고 그게 개발이나 해양개척을 하지 말자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바다에게서 끊임없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간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한 바다에게 우리는 이글의 소년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하고 바다 역시 우리에게 별이나 고기 등이 되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 21세기 해양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에게 있어 바다란 새로운 의미의 다른 것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여겨왔던 바다라는 것에 친구라는 두 자만 덧붙이면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다와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노인이 원하던 것이고 그의 행동을 본 내가 원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유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방학 때는 다시 한번 정동진을 찾아야겠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나의 바다를 느껴봐야겠다.